

# 對 국민 경제인식 조사 분석 결과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원

2018. 9

## YDI Report



---

## 《 머 리 말 》

---

높은 실업률과 늘어나는 소득격차 등 최근 발표된 여러 경제지표들 뿐 아니라 산업과 민생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공 행진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단기간에 40%대까지 추락한 점도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과 경직적 근로시간 단축 등 급진적 경제정책에 따른 높은 실업률과 소득격차 확대, 자영업의 몰락 등의 부작용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수출도 증가하고, 국가신용도 좋으며, 성장률도 2.9%면 나쁘지 않다며 “희망이 싹이 자라난다”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작금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긍정이 우세한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정책보고서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의도연구원에서 지난 8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2천여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2년차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제, 재정지출 확대,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독자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을 문재인 정부에서 겸허히 받아들여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실천과제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헤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노동시장구조의 개혁과 경제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선 동

---

## 《 요약 》

---

### 1. 조사 · 분석의 목적

한국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 2년차에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전망. 더불어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최저임금인상, 재정지출 확대,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을 평가

### 2. 분석결과 요지 및 시사점

#### ① 국민의 살림살이 평가 및 전망

국민들은 불안한 일자리와 생계비 부담 등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가계 살림살이를 매우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②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소득주도성장이나 일자리 정책, 그리고 세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재정지출 확대, 탈원전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점수도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임. 특히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지역별로는 호남권,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왔음. 더불어서, 보수는 물론 ‘중도’ 성향의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이러한 분석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들에 대한 깊은 우려와 더불어,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 내지 대대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다만, 분석 결과, 문제인 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이 되고 있는 ‘소득 주도성장’, ‘최저임금’ 및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정치이념성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와 같은 정책용어들이 정치적 이념화되어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됨

### ③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

우리 국민들은 경제성장이 중요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일자리 확충’과 ‘기업투자 확대’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

또한, 경제전반의 규제 개혁과 복지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시장구조의 개혁’이 선결해야 할 경제개혁 과제라고 국민들은 지적하고 있었음

### ④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반영될 것임. 조사 결과 같은 시기에 시행된 타 여론조사업체의 국정지지율 조사결과보다 8.7~9% 낮은 47.3%로 나타남(리얼미터 56.3%, 한국갤럽 56%).

같은 맥락에서 볼 때, 9월 둘째 주인 현 시점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이미 30%대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또한, 보수와 진보 성향 간 극명한 대비 중 중도성향의 국민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점, 지역별 분석의 경우 서울과 인천·경기, 충청권, 강원·제주도의 경우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성향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의 긍정평가가 매우 높은 반면 학생과 무직·실직자들의 부정평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도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가지는 결과들임

# 《 목 차 》

제1절 조사의 개요 .....	3
1. 조사 목적 및 내용 .....	3
2. 조사 대상 및 표본의 특성 .....	4
제2절 국민의 살림살이 평가 및 전망 .....	9
1. 현 정부 출범 이후의 국민 살림살이 평가 .....	9
2. 미래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 .....	10
3.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애로 .....	11
제3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	15
1. 소득주도성장론 평가 .....	16
2. 일자리정책 평가 .....	17
3. 최저임금 인상 정책 평가 .....	19
4. 재정지출 확대 정책 평가 .....	22
5. 탈원전 에너지 경제정책 평가 .....	23
6.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	25
제4절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	31
1. 우리 경제의 주된 문제점 .....	31
2.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	31
3. 우선적 경제 개혁 분야 .....	32
제5절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	37
1. 국정운영 평가 .....	37
2. 이념성향 · 지역 · 직업별 · 연령별 분석 .....	38
제6절 시사점 및 결론 .....	43
부록 :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 설문(案) .....	45



# 제1절 조사의 개요



# 제1절 조사의 개요

## 1. 조사 목적 및 내용

### 1) 조사의 목적

최근, 산업·민생 현장의 목소리뿐 아니라 각종 경제통계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우리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문재인 정부 2년차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봄과 더불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최저임금제 등 구체적 경제정책들을 평가해 보기 위함이다.

본 조사는 지역·연령·정치이념성향·직업 등에 따른 국민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對국민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2) 조사의 내용

본 설문조사는 조사목적에 맞추어 조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는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관한 질문, 둘째,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문항. 셋째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 넷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질문이다. 다섯째, 설문조사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질문 등이다. 구체적인 것은 보고서 말미에 첨부한 설문지를 참고하면 된다.

## 설문조사의 내용

조사 내용	세부 조사 내용
국민 살림살이 평가·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살림살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li> <li>∞ 향후 1년 가계 살림살이 전망</li> <li>∞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애로</li> </ul>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주도성장론 평가</li> <li>∞ 일자리정책 평가</li> <li>∞ 최저임금 인상 정책 평가</li> <li>∞ 재정지출 확대 정책 평가</li> <li>∞ 탈원전 에너지 경제정책 평가</li> <li>∞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종합평가</li> </ul>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li> <li>∞ 경제정책의 우선순위</li> <li>∞ 경제개혁분야 우선순위</li> </ul>
국정운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운영 평가</li> </ul>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 직업, 지역</li> </ul>

## 2. 조사 대상 및 표본의 특성

### 1) 조사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107,788명의 전화연결을 시도 하였으며, 그 중 불응답, 불성실한 응답, 유효하지 못한 응답 등을 제외한 2,043명의 표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8월 22일(수) 11:00~22:00와, 23일(목) 11:00~16:00이었으며, 조사방법은 ARS 전화조사(휴대전화 RDD 70%, 유선전화 RDD 30%)를 이용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통계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표 내에 작성된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유형화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 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18년 8월 22일(수) 11:00~22:00 , 8월 23일(목) 11:00~16:00

- 모집단 및 표본 크기

모집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여

표본크기 : 2,043명

※ 응답률: 1.90% (총 107,788명 연결 중 2,043명 응답)

- 조사방법 : ARS 전화조사

휴대전화 RDD 1,419명 (70%), 유선전화 RDD 0,624명 (3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17\%P$ (최대허용 표집오차)

## 2) 표본의 특성

설문 응답자의 개인별 특성으로 성별, 연령별, 직업과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표본의 구성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49.6%, 여성이 50.4%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미미하게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5.1%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로 20.4%, 50대 약 19.9%의 순으로 표본이 구성되었다.

조사에 응한 사람을 직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사무관리전문직이 2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영업 20.3%, 주부 14.2%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30.1%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5%, 부산·울산·경남 15.5% 순으로 나타났다.

전화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설문 표본의 개인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013	49.6
	여성	1030	50.4
연령	20대	356	17.4
	30대	352	17.2
	40대	416	20.4
	50대	407	19.9
	60대이상	512	25.1
직업	농림어축산업	107	5.2
	자영업	415	20.3
	판매영업서비스직	217	10.6
	생산기능노무직	176	8.6
	사무관리전문직	545	26.7
	주부	289	14.2
	학생	125	6.1
	무직퇴직기타	169	8.3
지역	서울	399	19.5
	인천, 경기	615	30.1
	충청권	214	10.5
	대구경북	206	10.1
	부산울산경남	318	15.5
	호남권	204	10.0
	강원제주	87	4.3

## **제2절 국민의 살림살이 평가 및 전망**



## 제2절 국민의 살림살이 평가 및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국민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1년 살림살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나 고민이 무엇인지도 설문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민 스스로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향후에서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은 현재 자신의 살림살이에 평가뿐 아니라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특이한 사항은, 정치이념 및 성향적으로 보수층이나 진보층 보다도 중도 성향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 가계 살림살이에 대한 인식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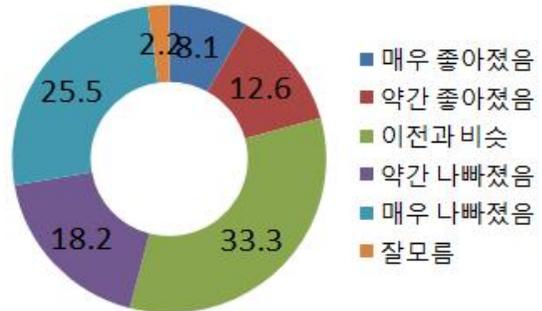
		現정부 下 살림살이 평가		향후 1년 살림살이 전망	
		좋아졌음(%)	나빠졌음(%)	좋아질 것(%)	나빠질 것(%)
합 계		<b>20.8</b>	<b>43.7</b>	<b>26.6</b>	<b>41.9</b>
이념 성향별	보수(34.6%)	20.1	50.6	24.8	47.6
	중도(24.3%)	14.8	53.5	19.2	51.2
	진보(41.1%)	24.8	32.2	32.6	31.5

### 1. 현 정부 출범 이후의 가계 살림살이 평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는지 혹은 나빠졌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3.7%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좋아졌다는 응답은 20.7%에 불과하였다.

## 가계 살림살이 평가

	빈도(명)	비율(%)
매우 좋아졌음	166	8.1
약간 좋아졌음	258	12.6
이전과 비슷	681	33.3
약간 나빠졌음	373	18.2
매우 나빠졌음	521	25.5
잘 모름	44	2.2
합 계	2043	100.0



## 2. 미래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

향후 1년간 자신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앞서 살펴본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살림살이 평가 항목과 마찬가지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1.9%로 월등히 우세했다. 이어서 지금과 비슷 30.0%, 좋아질 것 26.6% 순이었다.<sup>1)</sup>

### 향후 1년 가계 살림살이 전망

	빈도(명)	비율(%)
매우 좋아질 것	191	9.3
약간 좋아질 것	354	17.3
지금과 비슷	613	30.0
약간 나빠질 것	462	22.6
매우 나빠질 것	393	19.3
잘 모름	30	1.5
합계	2043	100.0



1) 한국갤럽에서 지난 8월 7-9일간 시행한 조사에서는 좋아질 것 17%, 비슷 32%, 나빠질 것 44%, 잘 모름 7%로 나타났다(1,003명, 유선15%+무선85%, 95% ± 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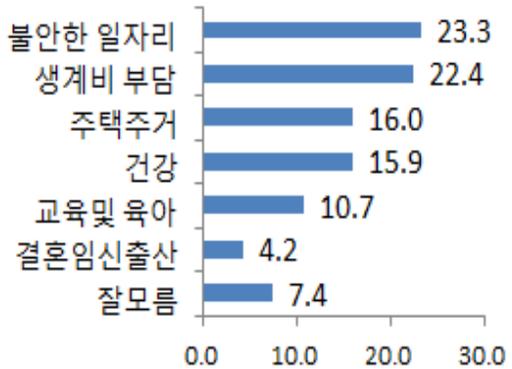
### 3.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애로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경제 애로이자 고민거리는 ‘불안한 일자리’ (23.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계비 부담(22.4%), 주택·주거 (16.0%), 건강(15.9%), 교육·육아(10.7%) 순이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임시직의 신규 실업자의 대폭적 증가,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문제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빈도(명)	비율(%)
불안한 일자리	477	23.3
생계비 부담	458	22.4
주택주거	326	16.0
건강	324	15.9
교육및 육아	219	10.7
결혼임신출산	87	4.2
잘모름	152	7.4
합계	2043	100.0





**제3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 제3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조사의 주안점을 두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 이른바 ‘J-노믹스’의 3대 축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성장이다. 또한 일자리창출을 국정의 제1목표로 표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성적표는 ‘F학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sup>2)</sup> 또한 시장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한 경제정책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인 근로시간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실업률 급증, 소득격차 확대, 자영업의 몰락 등 부작용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수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 CDS 프리미엄 하락, 2.9%의 견실한 성장률” 등을 내세워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판이한 자화자찬을 내놓고 있다.<sup>3)</sup>

이에 본 조사에서는,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현 정부의 아전인수식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장과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어떻게 다른지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즉,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인상정책, 재정지출 확대정책, 탈원전 에너지경제정책 등 5가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종합적 관점에서의 평점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2)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F학점, 국내 경제석학 ‘쓴소리’”(브릿지경제, 2018.7.10.), 신장섭 “문정부 경제정책 F학점” 장하준 “학점 보류”(중앙일보, 2018.7.11.), 파탄에 직면한 ‘문재’ 노믹스(여의도연구원, 2018.5) 등 여러 자료와 발언에서 낙제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3) 예컨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참조.

## 1. 소득주도성장론 평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형국이 본 조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정책, 즉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경제의 성장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8.3%인 반면, (부분적)보완·수정·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66.7%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속적 추진 28.3%, 부분적 보완 19.9%, 정책 방향 수정 25.8%, 폐기 21.0%, 잘모름 5.0%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평가



다만, ‘부분적 보완’ 까지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분류한다면 정책의 기본방향 유지(48.2%)가 수정·폐지(46.8%)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미미하게나마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같은 시점에 시행된 유사한 주제의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부정적(수정·폐지)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다.<sup>4)</sup>

4) 리얼미터: 기본방향 유지 55.9%, 전면폐지 33.4%, 잘모름 10.7% (8.22, 500명, 유선20%+무선80%, 95% ± 4.4%P).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정치적 이념성향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중도성향의 국민들이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에 비해 부정적(지속추진 1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의 부정적 평가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추진(%)	보완수정폐기(%)
이념성향별	보수(34.6%)	25.6	69.8
	중도(24.3%)	19.1	74.8
	진보(41.1%)	36.1	59.3
직업별	자영업	23.5	72.3
	학생(19세이상)	14.8	82.3
	무직퇴직기타	23.1	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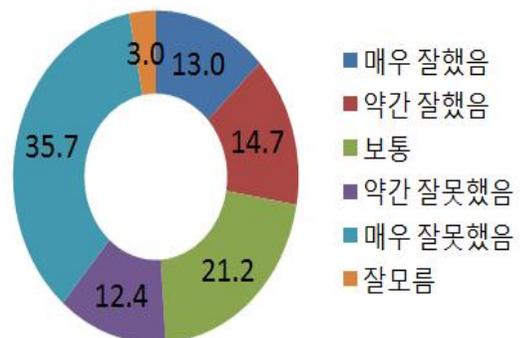
## 2. 일자리정책 평가

### 1)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48.1%로 잘하고 있다는 27.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정책 평가

	빈도(명)	비율(%)
매우 잘했음	265	13.0
약간 잘했음	301	14.7
보통	433	21.2
약간 잘못했음	253	12.4
매우 잘못했음	730	35.7
잘모름	61	3.0
합계	20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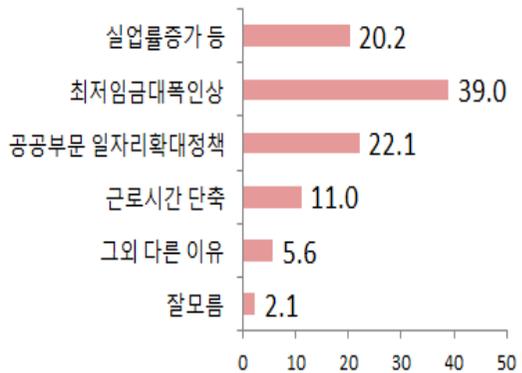
## 2) 일자리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배경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예문으로 제시한 5가지 이유 중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39.0%)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이어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 정책(22.1%), (청년)실업률증가(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예문에서 특정하지 않은 다른 이유들보다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공무원 증원, 실업률 증가,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정책 추진과제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해 보여주는 것이다.

일자리정책에서 잘못된 이유

	빈도(명)	비율(%)
실업률증가 등	199	20.2
최저임금대폭인상	384	39.0
공공부문 일자리확대정책	217	22.1
근로시간 단축	108	11.0
그외 다른 이유	55	5.6
잘모름	21	2.1
합계	9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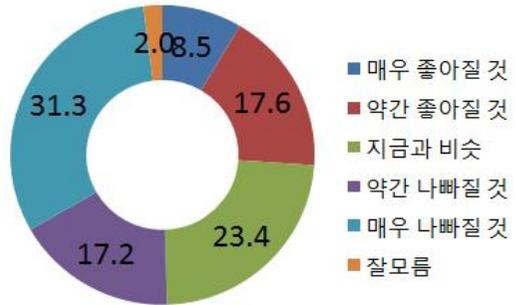


## 3) 고용상황에 대한 전망

향후 1년의 고용상황에 관해서는 ‘나빠질 것(48.4%)’으로 보는 응답자가 ‘좋아질 것(26.1%)’이라는 응답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향후 1년 고용상황 전망

	빈도(명)	비율(%)
매우 좋아질 것	173	8.5
약간 좋아질 것	360	17.6
지금과 비슷	478	23.4
약간 나빠질 것	351	17.2
매우 나빠질 것	639	31.3
잘모름	42	2.0
합계	2043	100.0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한 핵심 분야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그 주된 요인임을 금번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보다 심각한 문제는, 향후의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자리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현재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3. 최저임금 인상 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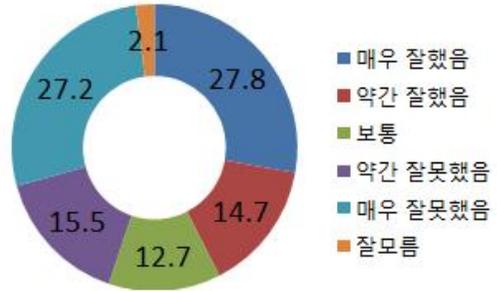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금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부분과, 정부에서 확정하였지만 관련법과 행정절차를 통해 다소의 운용상의 변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1)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

우선, 금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전년도 대비 16.4%인상 7,530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비율이 42.7%로 “잘했다(42.5%)”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 평가

	빈도(명)	비율(%)
매우 잘했음	568	27.8
약간 잘했음	300	14.7
보통	259	12.7
약간 잘못했음	316	15.5
매우 잘못했음	556	27.2
잘모름	43	2.1
합계	2043	100.0



특이한 점은, 응답자의 이념성향별로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본 결과, 중도성향의 국민들 역시 보수층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급속인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진보성향의 응답자의 경우 잘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 응답자 중 학생과 자영업종사자, 무직(실직)자의 경우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이 비교적 높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높은 반면 50~60대이상은 부정적 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이념성향·직업별 금년도·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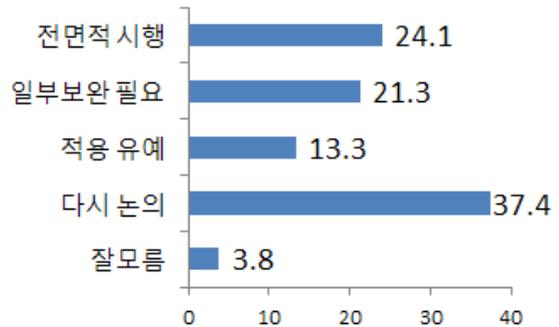
		금년도		내년도(%)	
		잘했음	잘못했음	시행·일부보완	재논의
이념성향별	보수(34.6%)	31.3	53.4	36.0	59.5
	중도(24.3%)	32.9	50.4	35.2	59.8
	진보(41.1%)	57.3	29.4	59.5	37.9
직업별	자영업	29.2	55.9	33.1	51.9
	학생(19세이상)	41.6	49.7	42.4	42.9
	무직·실직·퇴직	34.5	41.7	39.0	46.6

## 2)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한편, 최근 정부에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0.9%, 8,350원)에 관해서는 “보완·재논의해야한다” (72.0%)<sup>5)</sup>는 비율이 “전면시행해야한다” (24.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다만, 아래 표에서 보듯이 두 번째 지문인 “일부보완필요”의 경우를 “전면적 시행”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시행 對 재논의’ 비율이 45.4 對 50.7로,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비율이 소폭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평가

	빈도(명)	비율(%)
전면적 시행	493	24.1
일부보완필요	435	21.3
적용 유예	272	13.3
다시 논의	764	37.4
잘모름	78	3.8
합계	2043	100.0



결론적으로, 금년도 시행 중인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소폭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 보완 내지 적용 유예 및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우세하다고 판단된다. 덧붙여, 보수 성향의 국민들 뿐 아니라, 중도성향의 국민들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진보성향 국민들 중에서도 정부의 확정안을 고수해야한다는 비율은 32.3%에 불과하며, 65.1%의 진보성향 국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일부보완, 업종·지역별 적용유예, 재논의 등을 포함한 비율이다.

## 4. 재정지출 확대 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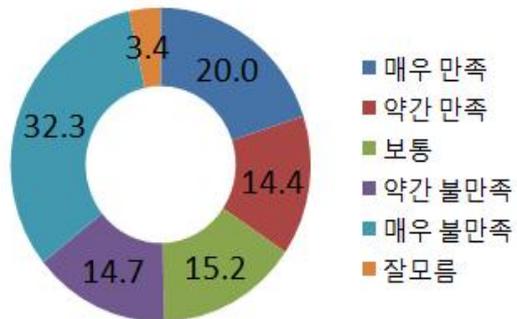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증원,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개편,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 등 많은 분야에 대한 지출을 큰 규모로 늘려왔다. 이러한 확장적 국가 재정투입 정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을 국가재정정책의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 1)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설문해 본 결과, 전문가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전체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0%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408	20.0
약간 만족	295	14.4
보통	311	15.2
약간 불만족	299	14.7
매우 불만족	660	32.3
잘모름	69	3.4
합계	2043	100.0



### 2)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배경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나라곳간 고갈 우려” (44.1%)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가경쟁력 약화(24.3%), 공공부문 비대화 (14.7%), 민간 경제 활력 저하(13.3%) 순으로 집계되었다.

## 확장적 재정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빈도(명)	비율(%)
재정고갈우려	424	44.1
공공부문 비대화	141	14.7
민간경제 활력저하	128	13.3
국가경쟁력 약화	233	24.3
잘모름	34	3.5
합계	9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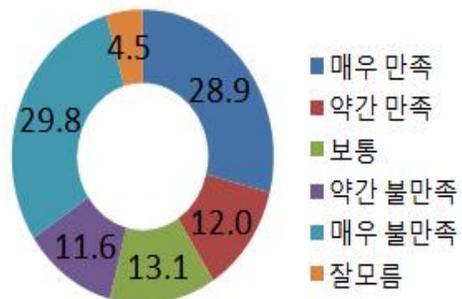
## 5. 탈원전 에너지 경제정책 평가

### 1)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족” 한 비율이 41.5%으로, “만족” (40.9%)보다 미미하게나마 높게 나타났다.

### 탈원전 에너지정책 평가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590	28.9
약간 만족	245	12.0
보통	268	13.1
약간 불만족	237	11.6
매우 불만족	610	29.8
잘모름	93	4.5
합계	2043	100.0



하지만, 정치이념·성향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다음 표와 같이 보수층의 경우 탈원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은 반면 진보층은 그 반대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보수성향의 응답자들과 마찬가지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중도=불만족, 진보=만족’으로 대비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탈원전 정책’ 역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trade mark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등의 정책용어와 마찬가지로 이미 정치적 이념화로 변질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다.

### 이념성향별 탈원전 에너지정책 평가

		만족(%)	불만족(%)
이념성향별	보수(34.6%)	29.9	53.3
	중도(24.3%)	31.9	48.0
	진보(41.1%)	55.5	27.6

## 2) 탈원전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

한편, 탈원전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 본 결과, “정치이념에 치우친 정책” (36.5%)이 ‘전력공급 불안전’ (20.3%), ‘전기료인상·가계부담증가’ (15.6%), ‘일자리감소’, ‘원전수출 악영향’ 등의 이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역시 ‘탈원전’이라는 정책용어가 우리 국민들의 이념성향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측면으로 해석된다.

## 탈원전 에너지정책의 불만족 원인

	빈도(명)	비율(%)
가계부담증가	132	15.6
전력공급 불안정성	172	20.3
원전해외수출 악영향	136	16.0
일자리 감소	86	10.2
정치이념에 치우친 정책	310	36.5
잘모름	12	1.4
합계	847	100.0



## 6.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 1) 종합성적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5개 분야(소득주도성장론, 일자리, 최저임금, 확장적 재정, 탈원전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개별 정책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적 인식을 평가해보기 위해 ‘출범 후 15개월 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성적표’를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추진된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점수는 5점 만점에 2.693점으로 나타났다.<sup>6)</sup> 지문에서 편의상 5점을 수 또는 A, 4점을 우 또는 B, 3점을 미 또는 C, 2점을 양 또는 D, 1점을 가 또는 F로 설정한다면, 중간점수인 3점(미, C)에 미치지 못하는 2점대(양 또는 D)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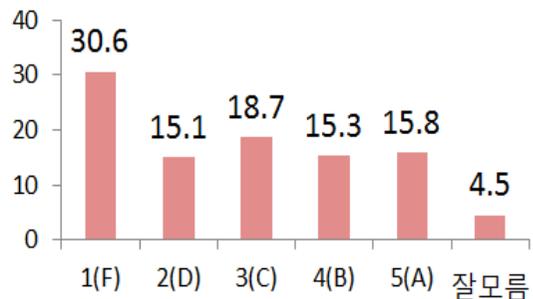
6) 각 점수별 빈도수를 곱한 값(5,254)의 총합을 ‘잘모름’ (92명, 4.5%)을 제외한 1,951명으로 나눈 값이다.

같은 조사결과를 달리 분석해 보면,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 15개월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1~2점)가 45.7%로 긍정적 평가(4~5점, 31.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1~5를 F~A의 치환해본다면, 각 성적에 대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점수는 1점(F점)이며, 30.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떠한 접근에서의 해석이든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종합평가

	빈도(명)	비율(%)
1점	625	30.6
2점	308	15.1
3점	382	18.7
4점	313	15.3
5점	323	15.8
잘모름	92	4.5
합계	2043	100.0



## 2) 이념성향·지역·직업·연령별 분석 결과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련된 조사를 이념성향별, 지역별, 직업별, 연령별로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경우 잘함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보수와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은 부정적 인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인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55.2%)이며, 부산·울산·경남(49.9%)이 그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못함’ 비율이 4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학생(19세 이상)의 부정적

인식 비율이 50.2%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 비율이 4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인식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로서 52.3%로써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 이념성향·지역·직업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종합평가

		잘함(%)	못함(%)
이념성향별	보수(34.6%)	23.6	58.6
	중도(24.3%)	20.8	44.4
	진보(41.1%)	64.4	25.1
지역별	서울	31.7	46.1
	인천·경기	31.8	45.4
	부산·울산·경남	38.7	49.9
	대구·경북	24.9	55.2
	호남권	41.9	29.4
	충청권	31.8	41.9
	강원·제주	39.8	40.3
직업별	농림어축산업	27.8	46.9
	자영업	25.8	53.8
	판매영업서비스직	29.6	45.9
	생산기능노무직	38.6	45.3
	사무관리전문직	39.4	37.9
	주부	30.1	45.1
	학생(19세이상)	19.7	52.5
	무직·퇴직	24.7	45.4
연령별	20대	26.7	52.3
	30대	43.1	35.8
	40대	39.8	42.6
	50대	28.6	48.3
	60대 이상	21.1	48.3

\* 5점척도의 지문 중 1점과 2점을 못함으로, 3점을 보통, 4점과 5점을 잘함으로 편의상 분류하였다.



## **제4절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



## 제4절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나라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며, 어떤 분야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소득양극화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 확충이며, 가장 중요한 개혁분야는 노동시장구조 개혁이라는 여론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1. 우리 경제의 주된 문제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득양극화’ 라고 응답한 비율이 46.0%로 절대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저출산·인구감소’ (16.2%), 낮은 성장률 (12.2%), 사회적자본 부족(10.3%), 대내외 경제리스크 확대(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 저성장문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소득 양극화, 대내외리스크 확대, 협력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 부족이 해소되어야 할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급증하는 실업률과 소득격차 확대 등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 여론은 소득격차 확대에 의한 양극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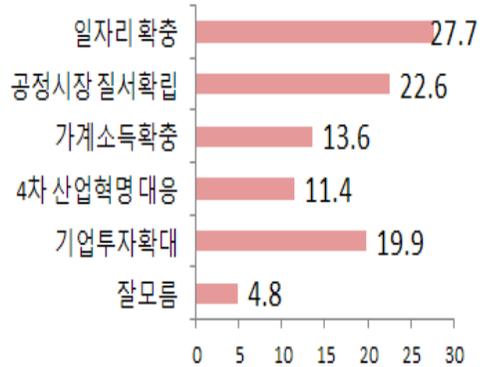
### 2.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자리 확충’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공정시장질서 확립(22.6%)과 기업투자 확대(19.9%)라고 응답한 비율도 일자리 확충과 큰 차이 없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경제정책 우선순위

	빈도(명)	비율(%)
일자리 확충	566	27.7
공정시장 질서확립	461	22.6
가계소득확충	277	13.6
4차 산업혁명 대응	233	11.4
기업투자확대	407	19.9
잘모름	98	4.8
합계	2043	100.0



특이점은, 보수와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은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경제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은 공정시장질서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의 경우 공정시장질서확립을 최우선과제로 꼽은 반면에, 그 외 모든 직종에서는 일자리 확충을 꼽은 비율이 모두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40대, 50대, 60대이상에서는 일자리 확충을, 30대와 40대에서는 공정시장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3. 우선적 경제 개혁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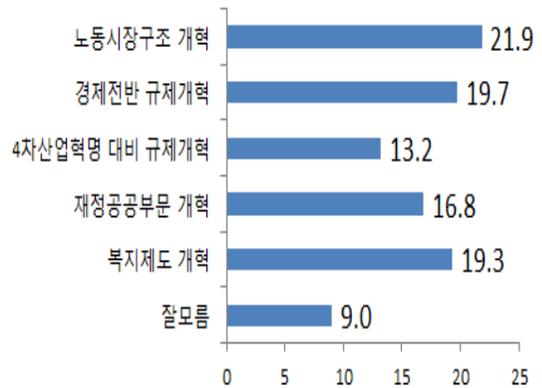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사 결과 이러한 지속·안정적 성장을 위한 최우선 경제개혁 분야로 ‘노동시장구조의 개혁’ (21.9%)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전반에서의 규

제개혁’ (19.7%), ‘복지제도개혁’ (19.3%)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설문에서 제시한 개혁 분야 모두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노동개혁이 급선무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규제개혁과 복지제도 개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경제개혁분야 우선순위

	빈도(명)	비율(%)
노동시장구조 개혁	447	21.9
경제전반 규제개혁	403	19.7
4차산업혁명 대비 규제개혁	270	13.2
재정공공부문 개혁	344	16.8
복지제도 개혁	395	19.3
잘모름	183	9.0
합계	2043	100.0





## **제5절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 제5절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매체 등에서 내려지고 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대표적이며, 기타 특정 기관이나 언론매체 등에서 의뢰하여 전문조사업체에서 조사·분석한 국정운영 지지율 평가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8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실시되었기에 같은 시기에 시행되었던 타조사 결과도 함께 대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1. 국정운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47.3%는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38.7%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긍정 56.3%, 부정 38.4%)와,<sup>7)</sup> 한국갤럽의 지지율 조사결과(긍정 56%, 부정 33%)<sup>8)</sup> 조사에 비해 긍정적 여론이 8.7~9.0% 낮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여론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들과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리얼미터 결과(9월 3~5일, 긍정 52.9%, 부정 41.0%) 및 한국갤럽 결과(9월 4~6일, 긍정 49%, 부정 42%)에 8%p 수준을 차감하면 39.3%로 계산된다. 즉, 만일 8월 22~23일 양일간 시행된 조사와 동일 모집단을 대상으로 여의도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30%대까지 하락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여의도연구원과 동일시기에 시행되었던 다른 여론조사결과 중에는 오히려 2.9%p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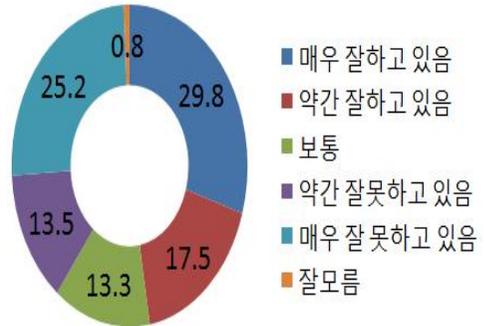
7) 8.13~17, 2,007명, 유선20%+무선80%, 95% ± 2.2%P.

8) 8.21~23, 1,001명, 유선15%+무선85%, 95% ± 3.1%P.

9) 대표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같은 시기에 조사된 또 다른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8월 22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인 조앤씨앤아이가 조사·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긍정 44.4%, 부정 45.2%였다.

## 국정운영 평가

	빈도(명)	비율(%)
매우 잘하고 있음	608	29.8
약간 잘하고 있음	358	17.5
보통	272	13.3
약간 잘못하고 있음	276	13.5
매우 잘 못하고 있음	514	25.2
잘모름	15	0.8
합계	2043	100.0



## 2. 이념성향·지역·직업별·연령별 분석

보수와 진보 간 정치이념·성향별 대비가 극명하지만, 중도성향의 국민 역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온 반면 그 외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 모두 잘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서울과 인천·경기, 충청권, 강원·제주의 경우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성향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주부, 학생, 무직·실업자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반면,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긍정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사무관리전문직이며, 가장 낮은 직업군은 학생과 무직·실직자들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긍정과 부정 비율이 비슷한 반면 30~50대의 경우 긍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다.

이념성향 · 지역 · 직업별 국정운영 평가

		잘하고 있음(%)	잘못하고 있음(%)
이념성향별	보수(34.6%)	34.7	50.7
	중도(24.3%)	36.4	44.4
	진보(41.1%)	64.4	25.1
지역별	서울	47.7	36.2
	인천·경기	47.8	38.4
	부산·울산·경남	38.7	49.9
	대구·경북	35.7	48.0
	호남권	73.2	16.2
	충청권	43.0	39.4
	강원·제주	50.7	39.2
직업별	농림어축산업	48.9	34.1
	자영업	40.9	45.7
	판매영업서비스직	44.5	36.9
	생산기능노무직	47.6	40.4
	사무관리전문직	62.1	27.4
	주부	39.2	42.6
	학생(19세이상)	38.2	50.2
	무직·퇴직	38.1	45.9
연령별	20대	45.9	43.1
	30대	56.7	32.3
	40대	55.0	35.1
	50대	45.4	37.5
	60대 이상	37.1	43.6



## **제6절 시사점 및 결론**



## 제6절 시사점 및 결론

본 여론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아래서의 불안한 일자리와 생계비 부담 등 국민들의 절망 수준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매우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이나 일자리정책, 그리고 세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 경제정책들에 대한 각각의 평가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점수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 본 결과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지역별로는 호남권,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 연령별로는 30대를 제

외한 모든 층에서 부정적 인식의 경우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높게 나온 것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책의 전환 내지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서, 보수는 물론 ‘중도’ 성향의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trade mark로 볼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및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정치이념성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탈원전 등의 정책용어가 정치적 이념화 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sup>10)</sup>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국민들은 경제성장이 중요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일자리 확충’ 이고, 가장 중요한 개혁분야는 ‘노동시장구조의 개혁’ 이라고 생각하고

10) 응답자 중 보수:중도:진보 비율이 34.6對24.3對41.1로, 진보성향의 응답비율이 보수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 중요함에도 국민들은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번 조사가 경제문제,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경제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도 큰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같은 시기에 시행된 다른 여론조사들보다 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읽을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실시된 또 다른 여론조사 등을 감안해 볼 때 대중적인 복수의 조사업체(리얼미터, 한국갤럽)의 국정지지율 조사결과는 현실과 적지 않은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9월 첫째 주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30%대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분석결과 중의 하나는, 보수와 진보 성향간 극명한 대비가 되지만 중도성향의 국민의 경우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더불어서, 지역별 분석의 경우 서울과 인천·경기, 충청권, 강원·제주의 경우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성향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의 긍정평가가 매우 높은 반면 학생과 무직·실직자들의 부정평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도 정책 담당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 부 록 】

### 對 국민 경제인식 조사 설문(案)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현상과 관련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진단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주어진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2018년 8월 22일

조사담당: 이종인 010-3168-1306, [jilee1306@naver.com](mailto:jilee1306@naver.com)  
김영현 010-8818-7328, [dudgus202@naver.com](mailto:dudgus202@naver.com)

01. 지역 :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 ① 서울, 인천, 경기                      ②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③ 대구, 경북                              ④ 부산, 울산, 경남
- ⑤ 광주, 전북, 전남                      ⑥ 강원                              ⑦ 제주

02. 성별 : 귀하께서 남성이면 1번, 여성이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 ① 남성                      ② 여성

03. 연령 : 귀하의 연령을 선택해주시십시오.

- ① 만 18세 이하 (설문종료)              ② 만 19세 이상 20대              ③ 30대
-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04. 선생님의 최근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우십니까?

- ① 불안한 일자리                      ② 생계비 부담                      ③ 주택·주거
- ④ 건강                                      ⑤ 교육 및 육아                      ⑥ 결혼·임신·출산
- ⑦ 잘 모르겠다

05.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낮은 성장률                      ②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③ 소득 양극화  
 ④ 대내외 리스크 확대                      ⑤ 협력, 신뢰 등 사회적자본 부족                      ⑥ 잘 모르겠다
0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생님 님의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까? 혹은 나빠졌습니까?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이전과 비슷하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⑥ 잘 모르겠다
07.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근본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③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책방향 수정·보완해야 한다  
 ④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08. 선생님께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잘했다 (문10으로)                      ② 약간 잘했다 (문10으로)                      ③ 보통이다 (문10으로)  
 ④ 약간 잘못했다 (문09로)                      ⑤ 매우 잘못했다 (문09로)                      ⑥ 잘 모르겠다 (문10으로)
09.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0으로)  
 ① 실업률 증가·청년실업률 대폭 증가                      ② 최저임금 대폭 인상  
 ③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 정책                      ④ 근로시간 단축  
 ⑤ 그 외 다른 이유                      ⑥ 잘 모르겠다
10.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나빠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②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③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⑥ 잘 모르겠다
11.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작년대비 16.4%로 대폭 인상되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했다                      ② 약간 잘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못했다                      ⑤ 매우 잘못했다                      ⑥ 잘 모르겠다
12. 지난 8월 3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① 전면적으로 시행해야한다  
 ② 인상을 조정, 산입범위 조정 등 일부보완이 필요하다  
 ③ 일부지역·업종에서는 적용을 유예해야한다  
 ④ 물가상승률, 고용률 등을 고려하여 다시 논의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13.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공무원 수 증원,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개편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정부의 최근 재정 지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문15로)                      ② 약간 만족 (문15로)                      ③ 보통 (문15로)  
 ④ 약간 불만족 (문14로)                      ⑤ 매우 불만족 (문14로)                      ⑥ 잘 모르겠다 (문15로)
14. 그렇다면, 불만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문15로)  
 ① 막대한 세금 투입으로 재정 고갈 우려                      ② 공공부문 비대화  
 ③ 민간경제 활력 저하                      ④ 저성장심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⑤ 잘 모르겠다

15.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정책, 즉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문17로)      ② 약간 만족 (문17로)      ③ 보통 (문17로)  
 ④ 약간 불만족 (문16으로)      ⑤ 매우 불만족 (문16으로)      ⑥ 잘 모르겠다 (문17로)

16. 그렇다면, 불만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문17로)
- ①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가계 부담 증가  
 ②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우려  
 ③ 원전사업 해외 수출에 악영향  
 ④ 원전건설 중단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⑤ 정치이념에 치우친 정책  
 ⑥ 잘 모르겠다

17. 안정적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동시장구조 개혁      ②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  
 ③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개혁      ④ 재정·공공부문개혁  
 ⑤ 복지제도 개혁      ⑥ 잘 모르겠다

18.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자리확충      ② 공정시장 질서확립      ③ 가계소득확충  
 ④ 4차 산업혁명 대응      ⑤ 기업투자확대      ⑥ 잘 모르겠다

19. 앞으로 1년간 선생님 덕의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나빠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②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③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⑥ 잘 모르겠다

20.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5개월간 경제 정책을 5점 만점 점수로 평가한다면 다음 중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⑥ 잘 모르겠다

21. 정치이념성향 : 선생님의 정치적인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 ① 보수      ② 중도보수      ③ 중도      ④ 중도진보      ⑤ 진보

22. 국정운영 현재 평가 :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약간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 못하고 있다      ⑤ 매우 잘 못하고 있다      ⑥ 잘 모르겠다

23. 직업 : 마지막으로 통계 처리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농업/임업/어업/축산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연정책연구 YDI Report (YR2018-02)

##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 분석 결과

인 쇄 2018년 9월 13일

발 행 2018년 9월 13일

발행인 김선동

발행처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전 화 02) 6288-0502

팩 스 02) 6288-0536

인쇄처 원기획



여의도연구원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정당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정책연구」의 전문은 [www.ydi.or.kr](http://www.ydi.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